

강진군, 두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정호경 원장, 강진원 군수,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기업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일시에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정기납부한 개인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지난 3월에 이어 강진군에서 두 번째로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강진읍에서 정호경기장을 운영하는 정호경 원장이다.

하는 정호경 원장:

지난 3월 작천 토동출신으로 서울에서 주한군유엔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수 향우가 군에서는 처음으로 기업한테 이어 정 원장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일년 사이 2명의 아너를 배출하는 패거를 이뤘다.

해남산 우리밀 4천톤 (주)남도그린 전량 수매

판로확보 청신호

2018년산 해남 우리밀 4000톤을 (주)남도그린에서 전량 수매한다.

해남군과 (주)남도그린은 최근 협약을 통해 내년 생산될 우리밀 중 일반밀 계약물량 4000톤을 지역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월 해남군과 해남농협 등 8개 지역농협, (주)남도그린은 우리밀 재배 생산기지화 조성과 우리밀 자급구간 구축, 농기소득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2018년산 우리밀 3,500톤을 수매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해남군이 우

리밀 재배 수요를 감안한 계약물량 증량을 (주)남도그린에 요청, 최종 4000톤을 계약하게 됐다.

남도그린에서 수매할 우리밀은 금강밀 품종의 일반밀로 친환경 밀의 경우 (주)남도그린, 평글황토친환경을 통해 전량 수매되고 있는 만큼 해남산 우리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남도그린 측은 2018년 이 후 연간 5000~6000톤까지 계약물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지역 우리밀 재배농가가 계약을 희망할 경우 남도국산밀영농조합(061-434-0155)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추가물량 배정 및 종자공급이 가능하다.

목포시, 자동차건설기계관리사업자 합동워크숍

준수사항 교육·불법튜닝 설계·단속 기준 등 정보 제공

목포시가 지난 14일 해양수산부 합동센터에서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사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자동차건설기계관리사업자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동차건설기계관리사업자 운영 시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불법튜닝 설계와 단속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불법 자동차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기 위해 개최됐다.

시에 따르면 불법튜닝이나 등록 번호판 위반행위,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해 지난해 114건을 단속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21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시는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사업자의 법령 준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이경수 향우 이어 1년새 2명 '쾌거'

정호경 원장 "소외계층 등 약자에 도움 되길"

가입식은 14일 강진군청 군수실에서 열렸다. 주인공인 정호경 원장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니인 정 원장의 요청에 따라 인증패 및 뱃지, 성금판넬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정 원장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부터 20여 년째 정호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며, 2016년에는 영광의 강진군민의상을 수상했다.

가입식에 참석한 정 원장은 "주 고객이 군민 분들인데 진료를 통해 얻은 이윤의 일부는 우리 주위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

다는 생각으로 나눔을 실천해왔다"며 "이번 아너 기업을 계기로 앞으로 더불어 잘살고 모두가 행복한 강진이 되는데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선뜻 큰 금액을 기탁해준 정 원장에게 감사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은 데 소중한 기탁금을 잘 활용해 고귀한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그 동안 군민장학금 2천만원, 다문화가정 지원 1천만원 기탁, 저소득층 임플란트 무료시술, 사랑의 쌀과 라면, 난방용 연탄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진=최제영 기자



영암 금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 나눔 위한 4차 정기회의 개최

후원금 목표액 설정 등 논의

영암군 금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제기, 공동위원장 박종운)는 지난 11일 금정면 2층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과 관계공무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웃애 행복 더하기' 후원금 목표액 설정 및 모금방안과 금정면 주민 안전 아랑표지판 부착, 지역특화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 방안, 2018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웃애 행복더하기' 현재 모금액 697만원 모금되고 연합모금은 모금액에 따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에서 모금액의 최대 40%까지 매칭 배분해 주는 사업으로, 모금액은 2018년에도 금정면 복지사각지대 및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쓰여 질 계획이다.

금정면 공동위원장인 정제기 면장은 2018년도에도 주민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 내 복지지원의 발굴을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이 행복한 복지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내고 지역의 소외계층 가구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 운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곡성군, '농업기계교육관' 준공

농업기술센터 광장에 위치…총 13억원 사업비 투입

곡성군은 '농업기계교육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근기 군수를 비롯해 이민수 의장, 관내 유관기관장 및 농업인단체장, 농연인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계교육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농업기계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 광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624m²로 건립됐으며, 1층은 사무실과 부품실로, 2층은 교육관 및 정비실로 사용하게 되며, 국비 6억5천만원을 포함 총 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곡성군 농업기계서비스사업의 태동은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농업기계 부품을 군에서 직접 구입해

농가에 보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8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농업기계 인대와 수리서비스를 추진하게 됐으며, 그 이유는 트랙터? 품비인? 지게차 등 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대다수가 고장 발생 등 농가부담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유근기 군수는 "그동안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와 '읍면 순회 수리 서비스'와 연계해 농업기계 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기계 교육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업인 편의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희 기자

곡성군 '작은영화관' 오는 22일 개관

30여년 만에 개봉…2개 상영관 95석 2차례 걸쳐 유료 상영

곡성군은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더 즐겁고 편안한 여가 생활을 위해 '작은영화관'을 오는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개관식 및 시사회에는 드라마와 영화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영화 '곡성'에서 음내파 출소장으로 명품연기를 펼쳤던 배우 김기천 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곡성 '작은영화관'은 지난 80년대에 읍내에 있던 중앙극장과 곡성극장 2개 영화관이 폐관된 이후 30여년 만에 찾아온 영화관 개봉 소식에 군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작은 영화관은 2개 상영관 95석, 사무실, 매점, 대기홀 등을 대한 단장을 마치고 곡성 작은영화관

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된다.

개관 당일은 오후 3시 시사회를 시작으로 오후 6시 30분과 7시 2차례에 걸쳐 영화가 유료로 상영될 예정이다.

다음날인 23일부터는 1일 6차례 상영되며, 관람요금은 2D영화 5천 원, 3D영화 8천 원으로 도시 지역 영화관에 비해 70% 수준으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개관을 기념하는 첫 영화는 하정우·차태현 주연의 '신과 함께'가 상영되며, 같이 만나볼 수 있는 영화는 '강철비', '스타워즈', '1987', '포켓몬스터', '위대한 쇼맨' 등이다.

곡성=김광희 기자



전라도의 정론지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광주지국안내	
계립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외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